

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

한형민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
(hmhan@kiep.go.kr, 044-414-1230)

김정곤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
(jgkim@kiep.go.kr, 044-414-1093)

송영철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
(ycsong@kiep.go.kr, 044-414-1067)

윤지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
(chyun@kiep.go.kr, 044-414-1327)

차 례

1. 머리말
2. 對인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
3. 對인도 투자 증가요인
4.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

주요 내용

- ▶ 신남방정책의 주요 거점국인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(이하 FDI)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바, 對인도 FDI의 증가 추이와 그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.
 - 최근 전 세계 FDI가 연평균 2.3%(2013~17) 감소한 가운데, 對인도 FDI는 같은 기간 연평균 9.2% 증가
 - 2018년(9월 기준) 우리나라의 對인도 투자는 8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증가하고 있지만, 일본 및 미국과의 격차가 크고, 분야도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한적
- ▶ 최근 對인도 FDI는 미국, 중국 등을 중심으로 M&A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, SW, 통신, 전자상거래 등 첨단 서비스업 중심으로 진행됨.
 - 미국의 對인도 FDI는 2010~13년간 38억 2,500만 달러에서 2014~18(9월)년간 116억 4,300만 달러로 증가, 중국의 투자는 같은 기간에 2억 6,100만 달러에서 18억 2,500만 달러로 증가
 - 2016년 이후 M&A 투자가 對인도 FDI를 견인, 2018년에는 전체 FDI의 60%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
 - 컴퓨터 소프트웨어, 통신,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각각 10.1%, 5.5%, 4.4%p(2014~18년 9월) 증가
- ▶ 對인도 FDI 증가는 ① FDI 규제완화, 세제 개선 등 기업 투자환경 개선 ② 디지털, 첨단산업의 성장 ③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확대 등에 주로 기인
 - 인도는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서 190개국 중 77위(전년 100위)를 기록, 대부분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자동승인하고, 통합간접세(Goods and Services Tax)를 도입하는 등 사업환경을 지속 개선
 - 디지털, 첨단산업의 성장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, 모디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FDI가 증가 추세(2016년 22억 5,800만 달러 → 2017년 30억 달러)
- ▶ ICT 서비스, 전자상거래, 의료·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인도와의 전략적 투자협력 강화가 요구됨.
 - 미국, 중국, 일본 등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對인도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인 반면, 한국의 對인도 투자는 자동차, 금속·철강 등 일부 제조업에 집중
 - 인도가 강점을 가진 ICT 서비스(인공지능, 빅데이터 포함), 인도시장의 성장성이 우수한 전자상거래, 그리고 인도정부의 육성산업인 신재생에너지, 의료·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필요
 - 국내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,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
 - 거래비용이 높은 한·인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특성상 정부 및 유관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, 특히 중견·중소기업의 對인도 서비스 투자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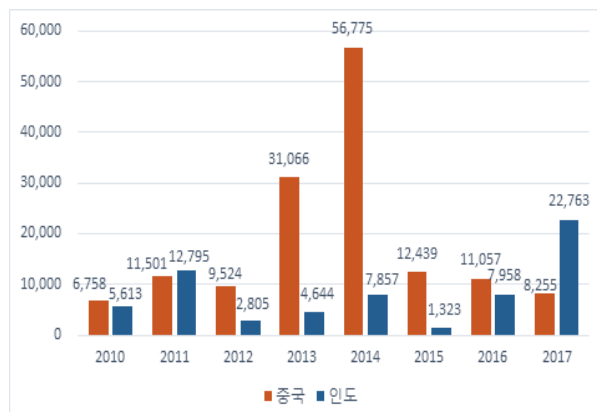
1. 머리말

-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투자 감소와 미국의 세제 개편 등으로 전 세계 FDI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임.
 - 2018년 전 세계 FDI는 전년대비 약 20% 줄어든 1조 2,000억 달러로 추정됨(UNCTAD, 2019).
 - 최근 전 세계 투자 부진은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투자 감소,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인한 미국의 주요 다국적 기업의 본국 회귀 등이 주요 원인임.
 - 유럽, 북미에 대한 FDI는 감소하는 반면, 중국과 인도 등 對아시아 FDI는 안정적으로 성장 중임.

- 전 세계 FDI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, 對인도 FDI는 증가 추세이고, M&A 투자 규모는 중국을 넘어섬.
 - 2010~14년간 200억 달러(누적)에 머물던 對인도 FDI는 2015년 이후 약 400억 달러로 증가 중
 - 최근 對인도 투자는 다른 주요 아시아 투자처 대비 높은 수준을 보임.
 - 2010년부터 2017년까지 對인도 투자금액은 2,700억 달러로, 이는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 1,300억 달러, 태국 600억 달러, 베트남 800억 달러, 말레이시아 840억 달러를 크게 웃돌.
 - 특히 최근 일부 기간의 對인도 M&A 및 그린필드 투자 규모는 중국을 넘어섬.
 - 해외기업의 對인도 M&A 투자 규모는 2013~14년 중국과 비교하여 약 14% 수준에 불과했지만, 2017년 220억 달러를 투자받아 對중국 투자 금액(83억 달러)을 크게 상회했고, 2017년 그린필드 FDI 투자 신고 건수 역시 약 703건으로 중국(약 798건)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를 지속

그림 1. 對인도, 對중국 M&A 추이

(단위: 백만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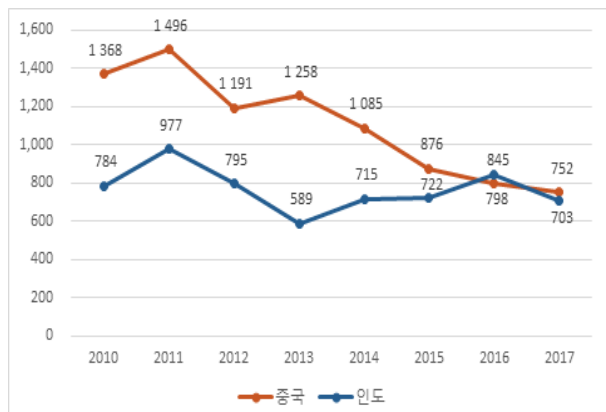


주: 크로스보더 M&A 순판매액 기준

자료: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(2018):Annex Table

그림 2. 그린필드 FDI 신고 건수

(단위: 건)



자료: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(2018):Annex Table

- 우리나라의 對인도 투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, 일본 등 경쟁국과의 격차가 큼.
 - 2018년(9월 기준) 우리나라의 對인도 투자는 역대 최고치인 8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임.¹⁾

- 그러나 2000~18년 9월 누적기준 인도의 전체 FDI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.8%로 미국, 일본과는 각각 5.1%p(약 200억 달러), 6.5%p(약 250억 달러)의 격차가 존재함.
- o 2014~18년 9월 누적기준 일본의 對인도 투자는 약 138억 달러, 미국은 약 116억 달러, 중국은 약 18.3억 달러이지만, 한국은 약 18.9억 달러로 중국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.

표 1. 국가별 對인도 FDI 누적 비중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순위	국가	금액	비중	순위	국가	금액	비중
1	모리셔스*	130,270	32.7	8	사이프러스*	9,667	2.4
2	싱가포르*	75,392	18.9	9	프랑스	6,542	1.6
3	일본	29,193	7.3	10	UAE	5,961	1.5
4	영국	26,282	6.6	11	스위스*	4,442	1.1
5	네덜란드*	25,800	6.5	12	홍콩*	3,651	0.9
6	미국	23,387	5.9	13	한국	3,275	0.8
7	독일	11,321	2.8	18	중국	2,138	0.5

주: 2000~18년 9월 누적기준. * 조세회피, 또는 인도와 이중과세방지법 체결 국가.
자료: CEIC.

■ 본 보고서는 최근 對인도 FDI 증가와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한·인도 투자 협력을 중심으로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.

- 최근 미·중 무역마찰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도와의 경제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.
- o 인도는 신남방정책의 주요 협력국으로, 2014년 나렌드라 모디(Narendra Modi) 총리 집권 이후 연평균 7.3%(2014~17)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.
- o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7월 인도를 방문하였고, 모디 총리는 2019년 2월 21~22일 서울평화상 수상과 양국 간 정상회담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.
-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對인도 FDI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, 투자 증가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·인도 투자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함.

2. 對인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

가. G2(미국, 중국)의 투자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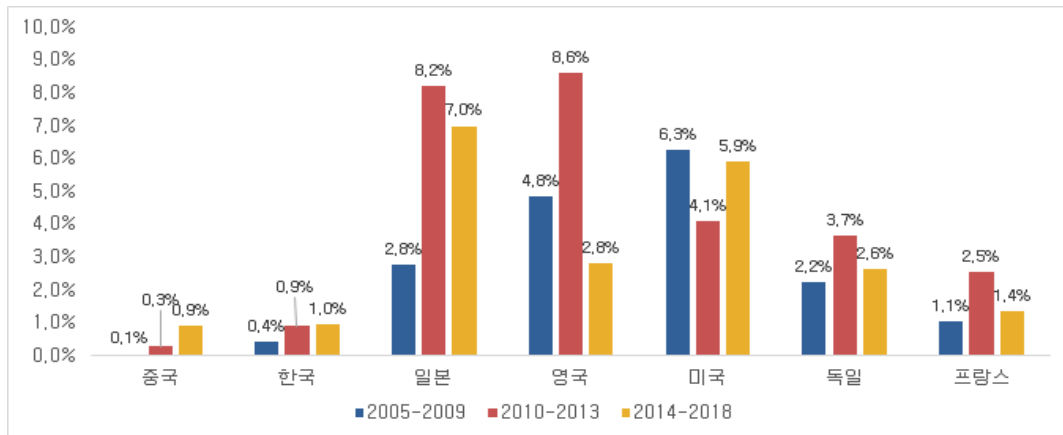
■ 최근 유럽 및 일본의 對인도 투자가 상대적으로 정체, 감소하는 사이 미국과 중국이 對인도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함.

1)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(검색일: 2018. 2. 15) 데이터를 활용했으며, 인도정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.

- 최근 5년간(2014~18.9) 영국, 독일, 프랑스가 對인도 FDI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 기간(2010~13) 대비 1.0~5.8%p 감소, 일본 역시 7%로 이전 기간 대비 1.2%p 감소함.
- o 다만 이 국가들의 경우 네덜란드, 모리셔스, 싱가포르, 홍콩 등 조세회피 지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도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바, 실질적인 對인도 투자는 증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²⁾
- o 특히 일본은 엔 론(ODA 자금)을 활용해 인도와의 협력사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면서 자국 기업들의 對인도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투자를 지속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.³⁾
- 반면 같은 기간 미국과 중국의 투자 비중은 이전 기간 대비 각각 1.8%, 0.6%p 증가하여 인도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.
- o 최근 5년간(2014~18. 9) 미국의 누적 투자금액은 116억 달러로 같은 기간 최대 투자자인 일본(138억 달러)과의 격차를 크게 좁힘.⁴⁾
- o 같은 기간 중국의 누적 투자금액 규모는 18억 2,000만 달러로 규모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작지만, 이전 기간 대비 약 7배 증가하며 미국(3배), 일본(1.8배), 한국(2.2배)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임.

그림 3. 주요 국가별 對인도 FDI 비중 변화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

기간	중국	한국	일본	영국	미국	독일	프랑스
2005~09	51	413	2,617	4,589	5,928	2,128	1,005
2010~13	261	857	7,683	8,040	3,825	3,426	2,370
2014~18	1,825	1,894	13,811	5,585	11,643	5,206	2,703

주: 2018년은 9월 기준.
자료: CEIC.

나. M&A 중심의 투자 활성화

■ 對인도 FDI는 2015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를 보이는바,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M&A 투자 증가에 힘입어 전체 FDI 유입액이 4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.⁵⁾

2) 2017년, 2018년 전체 FDI의 약 65%, 15%가 각각 모리셔스를 통해 투자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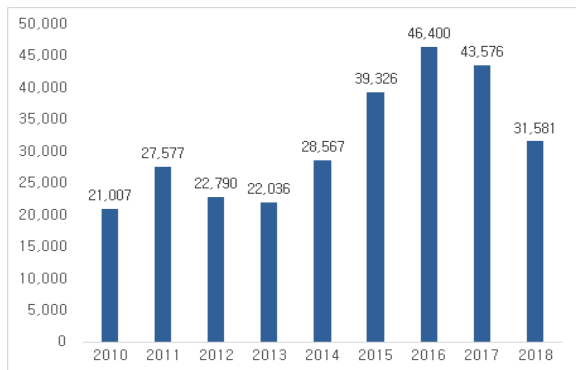
3) 일본은 자국의 풍부한 엔 론을 활용해 텔리-뭄바이 DMIC 프로젝트, 스마트시티 개발, 고속철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임. 해당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2017년 기준 약 1,300개의 일본 기업이 인도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추정됨.

4) 미국 역시 조세회피 국가를 통해 인도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투자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가능성이 높음.

- 2018년 M&A를 통한 對인도 투자는 지난해보다 71.5% 증가한 약 296억 달러를 기록(2017년 172억 달러),⁶⁾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60%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.⁷⁾
 - 인도 전체 FDI에서 M&A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9%를 기록한 이후 감소했으나, 2014년을 기점으로 최근 꾸준히 회복되는 추세임(2014년 21%, 2015년 22%, 2016년 39%, 2017년 37%).⁸⁾
- 2018년 거래금액 기준 전 세계 대인도 M&A의 약 67%(약 200억 달러)가 미국, 중국기업에 의한 투자이며, 건수 기준으로는 약 40%의 비중을 차지함(총 165건 중 67건).
 - 미국은 2018년 월마트의 플립카트 인수(약 160억 달러)를 포함, 1억 달러 이상의 중대형 거래만 10건을 성사시키며 유럽 국가들을 제치고 인도의 최대 M&A 파트너로 부상함(2018년 202억 달러).
 - 중국의 對인도 투자는 대부분 M&A를 통해 전략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, 특히 제약, IT 소프트웨어, 전자상거래,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에서 1억~10억 달러의 중대형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함(2016~18년 기간 중국의 對인도 M&A 투자는 약 16억 달러).

그림 4. 對인도 FDI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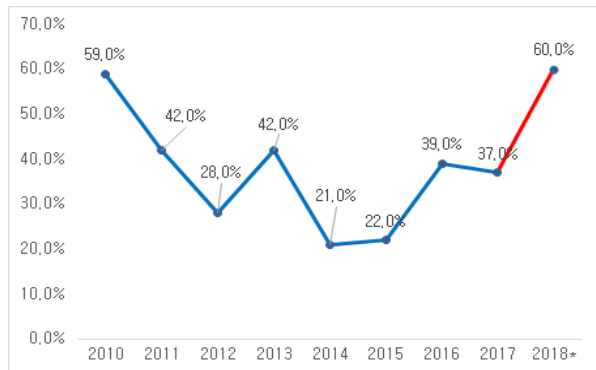
(단위: 백만 달러, %)



주: calendar year 기준, 2018년은 9월 기준.
자료: CEIC; OECD(2018. 2. 7).

그림 5. 전체 FDI 대비 M&A 비중 추이

(단위: %)



주: calendar year 기준, * 추정치.
자료: Thomson Eikon; 송영철 (2017).

다. 첨단산업 투자 확대

■ 인도의 디지털 경제화와 4차 산업혁명 진전, 산업고도화 진행에 따라 관련 첨단 서비스 및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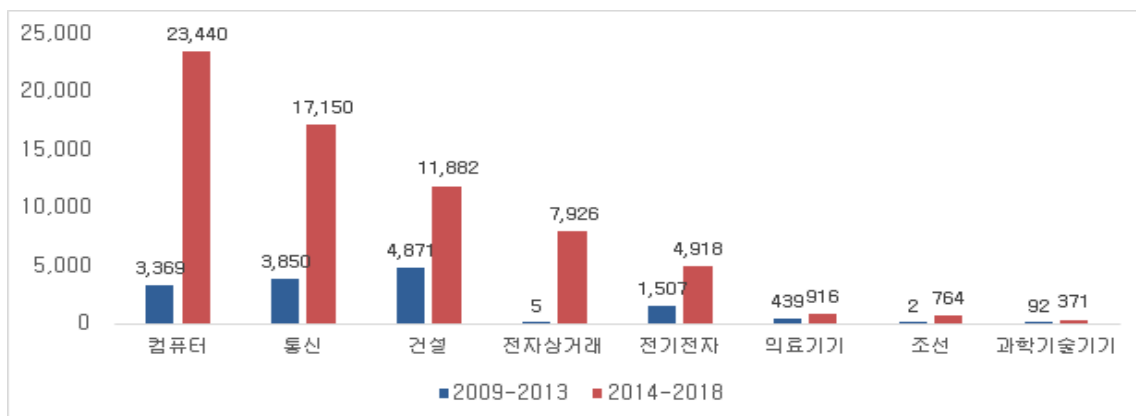
- 최근 5년간(2014~18. 9) 서비스산업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(3.6 → 13.1%), 통신(4.1 → 9.6%), 전자상거래(0 → 4.4%), 건설(4.2 → 6.6%)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함.

5) 인도 FDI는 세계경제위기 이전인 2008년 약 31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4년 이전까지 3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음.
6) FDI는 그린필드(green field)와 브라운 필드(inbound M&A) 투자의 합임. 다만 인도정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는 그린필드와 브라운 필드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. 이에 본 연구에서는 Thomson Eikon의 기업별 M&A 데이터를 활용해 브라운 필드 투자액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FDI에서 그린필드와 브라운 필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함.
7) M&A의 경우 2018년 12월까지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반면, 인도정부에서 발표하는 전체 FDI는 2018년 9월까지만 집계되어 있음.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전체 FDI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전체 FDI 대비 M&A 비중을 추정함.
8) 송영철(2017), 『인도 외국인직접투자의 구조적 변화와 시사점: M&A를 중심으로』, p. 65,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17-04.

- 특히 2016~18년간 외국기업의 인도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판매유통 기업에 대한 M&A는 24건으로 투자 규모는 약 200억 달러에 이르며, 이 중 80% 이상(거래금액 기준)이 미국에 의한 투자임.
 - 같은 기간 인터넷 소프트웨어, 통신 분야에 대한 총 M&A 투자는 약 31억 달러(28건)로, 미국(9건), 유럽(4건), 중국(2건)의 인도기업 인수 합병이 활발했음.
 - 한편 인도정부의 스마트시티 및 산업단지, 산업 회랑 개발 등에 힘입어 인프라(건설)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6.6%까지 확대됨.
- 제조업의 경우 디지털 경제화,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모바일, 4G 및 5G 관련 기기 등 통신장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·전자 부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(1.6 → 2.7%).
- 인도의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투자 비중이 비교적 낮은 의료기기(0.33 → 0.43%), 조선(0 → 0.4%), 과학기술기기(0.01 → 0.07%) 등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.
 - 미국, 유럽 기업을 중심으로 M&A를 통해 인도의 바이오, 우주항공, 반도체, 대체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.

그림 6. 기간별 주요 서비스 및 제조업 FDI 규모 및 비중 변화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

서비스업				제조업			
세부 산업	2009~13	세부 산업	2014~18	세부 산업	2009~13	세부 산업	2014~18
서비스*	17.6%	서비스*	13.8%	제약	6.7%	자동차	6.6%
호텔관광	5.5%	컴퓨터**	13.1%	자동차	5.3%	화학	4.3%
건설	5.2%	통신	9.6%	금속	5.2%	제약	2.3%
전력	4.5%	무역	6.8%	식품가공	3.4%	전기전자	2.7%
통신	4.1%	건설	6.6%	기계	2.5%	식품가공	1.7%
컴퓨터**	3.6%	전자상거래	4.4%	화학	2.3%	금속	1.6%
부동산	2.8%	화학	4.3%	전기전자	1.6%	기계	1.4%
무역	2.8%	전력	2.5%	고무	1.3%	섬유	0.9%
정보통신	2.1%	호텔관광	2.4%	시멘트	1.3%	고무	0.9%
엔지니어링	1.9%	정보통신	1.9%	석유화학	1.2%	석유화학	0.8%

주: calendar year 기준, 2018년은 9월까지 기준.
* 은행, 금융, 보험, 아웃소싱, R&D 등 포함, ** 소프트웨어.
자료: CEIC.

3. 對인도 투자 증가요인

가. 기업 투자환경 개선

■ 최근 인도의 전반적인 기업환경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음.

-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(Ease of Doing Business)에 의하면, 2018년 60.6점에서 약 7점 증가한 67.23점을 기록, 100위에서 77위로 급상승
 -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지수(0에서 100점 사이의 값)는 각 국가의 여러 분야 기업 규제 정도를 보여주는 지수임.
- 2019년 창업, 건축허가, 무역 등의 분야에서 전년대비 평가가 크게 상승하였으며, 소규모 투자자 보호(7위), 대출 용이도(22위), 전기(24위) 등에서 상위권을 기록함.

표 2.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: 주요 분야별 인도의 점수와 순위

	2019년 순위	2019년 점수	2018년 점수	점수 변화
전체	77	67.23	60.6	6.63 ↑
창업	137	80.96	73.9	7.06 ↑
건축허가	52	73.81	39.69	34.12 ↑
전기	24	89.15	88.64	0.51 ↑
부동산	166	43.55	43.09	0.46 ↑
대출	22	80	75	5 ↑
소규모투자자 보호	7	80	80	-
세금	121	65.36	65.23	0.13 ↑
무역	80	77.46	58.56	18.9 ↑
계약	163	41.19	41.19	-
지급불능 해결	108	40.84	40.75	0.09 ↑

자료: 세계은행 Doing Business India 발췌.

■ 모디 정부는 대부분 분야에서 FDI 100% 자동승인을 허용하였음.

- 2017년 8월 28일 기준으로 농업·축산업, 식목업, 제조업, 건설업, 민간항공, 무역 등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 한도 규제 없이 자동승인이 가능하도록 FDI 규제가 대폭 완화됨.⁹⁾
 - 공공부문을 제외한 대부분 금융서비스와 통신서비스, 국방 등에서는 49% 한도 내에서 자동승인
- 2018년 1월에는 49% 초과 시 정부 승인이 필요했던 싱글 브랜드 소매유통 부문에 대해서도 100% 자동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추가 완화함.
 - 현재 방송콘텐츠, 멀티브랜드 소매유통, 인쇄 매체, 인공위성 등의 분야에서는 정부 승인이 필수이며, 원자력 에너지와 일부 철도운영 등에서는 투자가 전면 제한됨.

9) 인공위성, 통신 및 뉴스 미디어, 출판, 국방, 항공서비스, 금융, 식품 및 멀티브랜드 소매유통 등은 제외.

표 3. 산업 분야별 FDI 승인방법 및 한도 규제 현황

구분	주요 내용
정부승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공위성/식품품 유통(100%), 멀티브랜드 소매유통(51%), 공공은행(20%), 뉴스 미디어(49%), 출판(세부 분야별로 26% 또는 100%) · 통신/국방/항공서비스 일부 49% 초과 시, 제약(브라운 필드) 74% 초과 시 정부 승인 필요 · 민간은행, 사설경비 49% 초과 시 정부 승인 필요(승인 한도 74%까지)
자동승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부 승인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 100% · 단 보험, 연금, 항공(scheduled air transport), 석유정제, 국방, 민간은행, 사설경비, 통신, 전력거래소 부문은 49%까지 · 제약부문은 그린필드 100%, 브라운 필드 74%까지
투자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복권, 도박, 부동산개발(타운십, 주택 및 상업시설, 도로 및 교량 등 제외) · 담배 제조, 원자력에너지, 철도(일부 제외)

자료: 송영철(2017), Consolidated FDI Policy (Effective from August 28, 2017) 및 인도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바탕으로 업데이트 및 재구성.

- 정부 승인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촉진포털(Foreign Investment Facilitation Portal, 이하 FIFP)을 신규 도입하여 FDI 승인 절차를 표준화 및 간소화함.
- o 모디 정부는 FDI 정부승인을 담당해왔던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(FIPB: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)를 2017년 6월부터 폐지하고, 이를 인도 상공부 산하 산업정책촉진국(DIPP) 아래 온라인 단일창구인 FIFP로 대체함.
- o FIFP는 산업부문별로 담당 기관을 지정해 최장 10주 안에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는 표준운영절차(SOP: Standard Operation Procedure)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.

■ 통합간접세(GST: Goods and Services Tax)를 도입하여 기업 활동을 원활화하고,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 진입장벽을 완화함.

- GST를 통해 중앙정부와 29개 주 정부 간의 상이한 간접세 세율을 통합함.
- 휘발유, 디젤 등 석유제품과 주류, 부동산 중개업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적용되며, 품목별로 0%, 5%, 12%, 28% 등 4단계로 차등하여 부과됨.
- GST 위원회는 2017년 7월 도입 이후 계속해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으며,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고 서식을 간소화하거나 신고 횟수를 줄이는 등의 시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.
- o 2018년 8월 개정안을 통해 냉장고, 세탁기 등 가전제품 17개 품목에 대해 세율을 28%에서 18%로 낮추는 등 총 88가지 품목에 대한 세율을 인하했으며, GST 신고 서식을 간소화함.¹⁰⁾
- 50,000루피(약 772달러) 이상의 화물 운송 시 관련 정보를 지정된 전자 포털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'E-way Bill'을 2018년 2월 1일부로 도입함.
- o 주(州) 내 물류 운송에 대해서는 안드라프라데시, 마디아프라데시, 메갈라야, 시킴, 풍디세리주를 시작으로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차례로 도입됨.¹¹⁾

10) KITA 해외시장 뉴스(<https://www.kita.net/cmmrcInfo/cmmrcNews/overseasMrktNews/overseasMrktNewsDetail.do?pageIndex=1&nIndex=1781142&type=0&searchReqType=detail&searchStartDate=2018.07.01.&searchEndDate=&categorySearch=IN&searchKeyword=gst>, 검색일: 2019. 2. 11).

11) cleartax 홈페이지(<https://cleartax.in/s/eway-bill-gst-rules-compliance>, 검색일: 2019. 2. 12).

나. 디지털, 첨단산업의 성장

■ 인도는 적극적인 정부 정책에 힘입어 디지털경제를 빠르게 형성 중임.

- 모디 정부의 디지털 인디아 정책은 디지털 인프라 확충, 인터넷 접속환경 개선, 국민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등을 추진 중임.
- 2018년 기준, 인도는 약 12억 개의 휴대전화 사용되고 있고(이 중 스마트폰 약 4억 4,000만 개), 약 4억 명의 인터넷 사용 인구가 있으며, 12억 명의 인구가 아다하(Aadhaar) 전자 생체 신분 번호¹²⁾를 발급받았음.¹³⁾
- 인도의 디지털경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, 인도 디지털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FDI가 증가함.
- 특히 전자상거래 산업에서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가 없는 점을 활용하여 최근 일본의 소프트뱅크, 중국의 알리바바, 미국의 아마존과 월마트 등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짐.

표 4. 주요 다국적기업의 전자상거래 투자(2013~17년)

기업명	투자 내용
소프트뱅크	[2013] Bharti, inmobi 등 모바일 서비스 회사에 지분 투자, 2억 달러 [2014~16] Snapdeal 전자상거래 투자, 23억 달러 [2017] Flipkart, Paytm 전자상거래 추가 투자, 43억 달러 Rivigo, Grofers India 물류 유통 분야, 1.6억 달러
알리바바	[2014~16] Snapdeal 전자상거래 투자, 8억 8,000만 달러 [2017] Flipkart, TicketNew 전자상거래 추가투자, 6,400만 달러 XpressBees, Zomato 물류 유통 분야, 5억 9,000만 달러
아마존	[2013] Amazon India 설립 [2014~16] 13개 주, 물류센터 62개 투자, 20억 달러 [2017] 물류센터 5개 추가, 30억 달러 물류 유통 분야 추가투자, 2,800만 달러
월마트	[2013] Bharti와 공동 창고형 유통점 설립 [2017] Flipkart 인수 등 전자상거래 투자, 160억 달러

자료: LG 경제연구원(2018), 「불확실성 걷히기 시작한 인도 경제」, p. 22 참고.

■ 첨단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음.

- 인도는 미국, 중국에 이은 세계 3대 최대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한 국가로, 2018년 한 해에만 1,200개 이상의 신규 스타트업이 설립되는 등 연평균 12~15%의 성장세를 보임.
- 2013~18년 신규 스타트업 설립 수는 7,500개를 웃돌며,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 수는 총 18개로 2018년에만 8개 기업이 등록됨.
- 인도정부는 미국, 유럽, 싱가포르, 러시아, 일본, 한국 등 14개 국가와의 국제 스타트업 교환 프로그램을 마련해 헬스케어, 핀테크, 스마트시티,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음.

12) 아다하(Aadhaar)는 인도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12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디지털 생체 신분번호로 2009년 Unique Identification Authority of India(UIDAI)를 통해 정보가 수집되고 있음.

13) <https://economictimes.indiatimes.com/tech/internet/internet-users-in-india-expected-to-reach-500-million-by-june-iamai/articleshow/63000198.cms>.

- 고도기술 분야의 스타트업 성장세는 전년대비 50%에 달하며, 특히 인공지능(AI)/머신러닝(ML), 사물인터넷(IoT), 블록체인, 3D 인쇄, 증강현실(AR)/가상현실(VR) 등의 성장이 두드러짐.
- 경제성장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, 점진적인 인구 증가, 현대 질병들의 등장을 요인으로 2012~16년간 약 3,000명이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창업했고, 28억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이끌어냄.¹⁴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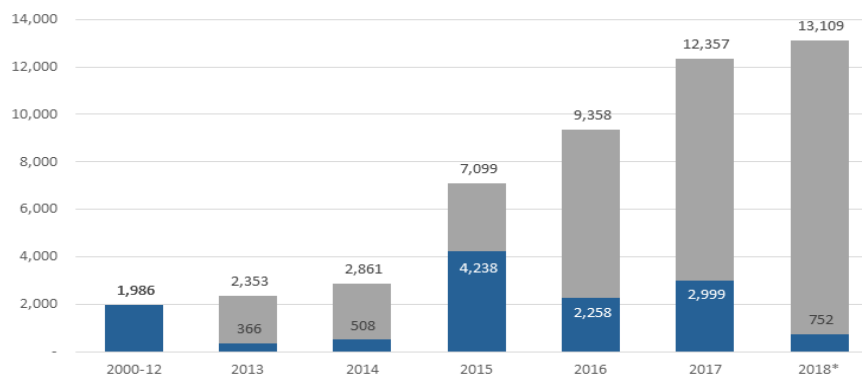
다.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확대

■ 모디 정부 이전부터 증가해온 항구, 공항, 전력 발전소, 열차, 도로 인프라 건설 수요가 모디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더욱 본격화됨.

- 2015년 한 해 인프라 부문에 유입된 FDI는 42억 3,800만 달러로 2000~14년 누적 28억 6,000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으며,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22억 5,800만 달러와 30억 달러를 기록함.
- 모디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스마트시티(Smart Cities Mission), 바라트말라(Bharatmala) 도로건설, 사가르말라(Sagarmala) 항만개발, 뭄바이 해상교량(MTHL: Mumbai Tans Harbour Link) 건설 사업 등임(부록 참고).
 - 도시계획 부문에서는 500개 중소도시의 기본 인프라를 개발하는 ‘도시재개발(AMRUT: Atal Mission for Rejuvenation and Urban Transformation),’ 가정, 커뮤니티, 공공장소 화장실 설치 사업인 ‘클린인디아(Swachh Bharat),’ 6,000만 저가주택을 공급하는 ‘Housing for All(PMAY: Pradhan Mantri Awas Yojana)’ 등이 추진되고 있음.
 - 2008년 1월 착수된 900억 달러 규모의 ‘델리-뭄바이 산업회랑(DMIC)’ 등 5대 산업 회랑¹⁵⁾을 비롯해 철로-도로 교차부(crossing) 재건사업(SETU Bharatam), 내륙수로 개발사업(강가 강, 브라마푸트라 강, 마하나디 강 등), 가스관 연결사업(구자라트-고라크푸르) 등 각종 인프라 사업도 진행 중임.

그림 7. 인프라 건설 부문 FDI 유입

(단위: 백만 달러, calender year 기준)



주: 회색은 누적기준, 남색은 당해 기준, * 2018년 1~6월

자료: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India - Annual Issue 2017, DIPP (<https://dipp.gov.in/sia-newsletter/foreign-direct-investment-india-annual-issue-2017>, 검색일: 2019. 2. 1).

14) https://www.business-standard.com/article/companies/indian-biotech-start-ups-attract-2-8-bn-in-investments-in-last-5-years-117021000731_1.html.

15) 세부 내용은 윤지현, 조충제(2018), 「신남방시대, 인도 모디노믹스 성과와 한·인도 협력과제」, KIEP 오늘의 세계경제, 18-25; 조충제, 송영철, 이정미(2015), 『인도 모디(Modi)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·인도 협력방안』, pp. 73~82, KIEP 연구보고서 15-15 참고.

4.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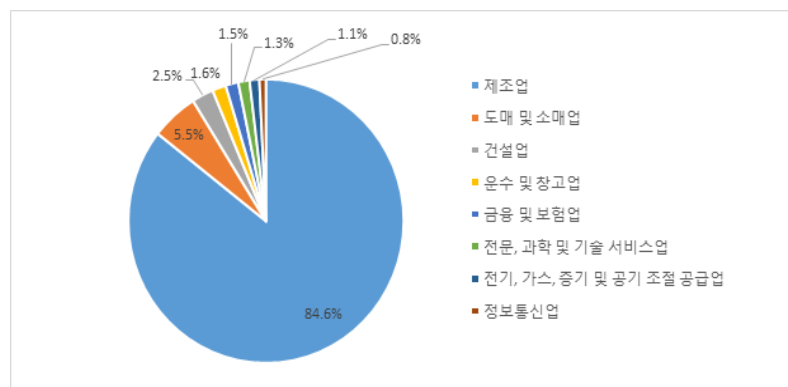
■ 인도는 최근 신남방 지역의 주요 투자 거점지로 부상하고 있는바, 對인도 투자확대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- 인도는 최근 FDI 정부 승인 절차를 간소화·자유화하는 한편, GST를 도입하고 토지수용법 및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투자환경이 양호함.
- 또한 풍부한 기술·인적자원 및 첨단산업의 성장, 그리고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확대 등에 따라 외국기업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.
- 인도는 산업구조 고도화 및 디지털화 추진, 그리고 두터운 젊은 층 인구를 흡수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 주요한 정책 과제로서,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다.
- 우리나라는 최근 對인도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으나 미국, 일본 등에 비해 미흡한 상황임.

■ 인도 특유의 경쟁력 및 수요를 고려할 때, 첨단산업의 전략적 투자 거점지로서 유망함.

- 우리나라의 對인도 투자는 자동차(51%), 금속·철강(25.5%), 식료품(5.6%), 전기·전자(5.5%) 등 일부 제조업에 편중된 경향이 있으며,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임.
- 일본의 경우 자동차, 기계 등 기존의 주력 분야는 물론, 최근 바이오, 제약, 소프트웨어, 전자상거래(인터넷 판매/유통)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투자 분야를 다변화하고 있음.
- 인도정부가 ‘Make in India’ 정책을 통해 육성산업으로 내세운 IT/통신기기, 신재생에너지, 의료, 바이오, 방위, 제약, 우주항공 분야 등은 물론, 디지털경제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수요가 증대될 IT 서비스, 전자상거래,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투자기회를 모색해야 함.¹⁶⁾

그림 8. 우리나라의 對인도 업종별 투자비중(2018년 9월 누적기준)

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(2019. 2. 11).

16) 인도정부는 제조업 육성정책인 ‘Make in India’를 통해 25개 핵심산업을 제시함(조충제, 송영철, 이정미(2015), 『인도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·인도 협력방안』, p. 50, KIEP 연구보고서 15-15).

- 인도의 13억 인구가 산출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투자 분야 개발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음.
 - 인도는 신흥국 가운데 데이터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,¹⁷⁾ 세계 최대 규모의 디지털 개인인증 시스템 (Aadhaar)을 도입함으로써, 활용성이 우수한 광대한 데이터 자원을 보유함.

■ M&A 투자 및 스타트업 협력 확대는 對인도 투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.

- 그린필드 투자 위주에서 탈피,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M&A를 투자를 확대해야 함.
 - 최근 3년간(2016~18년) 일본과 중국은 M&A를 통해 각각 32억 달러(35건), 16억 달러(11건)를 인도에 투자한 반면, 한국은 2.3억 달러(6건)에 불과해 대부분의 투자가 그린필드 형태에 집중됨.
 - 對인도 투자 경험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국은 전략적으로 M&A를 활용해 과거 인프라에 편중되었던 투자 분야를 제약, 인터넷서비스, 소프트웨어, 전자상거래, 방송 미디어 등으로 확대하고 있음.
-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 딥테크(DeepTech) 분야의 스타트업 협력 확대에 주력해야 함.
 - 양국 기업이 전문인력과 협력파트너를 원활하게 모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, 정부 및 유관기관 차원의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.

■ 인도의 우수한 기술 및 인적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R&D 투자 협력을 강화해야 함.

- 인도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바, 이를 중심으로 R&D 투자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.
 - 미국 특허·상표청에 등록된 실용특허(utility patents) 자료를 근거로 할 때, 인도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특허 등록 건수(2010~15년)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임.¹⁸⁾
-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對인도 R&D 투자 협력을 중견·중소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.
 - 방갈로르, 델리, 하이드라바드 등은 R&D 및 창업 거점으로서 이미 국제적인 위상을 획득하고 있으며, 다양한 분야에 걸쳐 R&D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.¹⁹⁾
 - 2018년 7월 한·인도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인도 중소기업공사 부설 기술서비스센터에 한·인도 기술교류센터를 개소한 바 있음.

■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,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를 위해 적극적 정책 지원이 필요함.

- 인도의 급속한 디지털경제화에 따라 디지털 인프라 구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, 통신 설비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.
 - 인도 중앙정부의 2018~19년 인프라 투자 예산은 6조 루피로 전체 예산안의 약 25%를 차지하고, 인프라 시

17) 인도는 데이터 정책 측면에서 자유도가 높은 편임. 중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데이터 규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(세계 1위), 인도는 16위를 기록하여 프랑스(4위), 독일(7위), 한국(8위) 등과 비교하여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(ECIPE(2018), *Digital Trade Restrictiveness Index*).

18) 최낙균 외(2018), 『디지털 혁신의 국제비교와 시나리오별 무역 영향 분석』, pp. 87~88, KIEP 연구보고서 18-03.

19) 글로벌 R&D 센터로서 인도의 위상은 Indian Brand Equity Foundation(2017), *Science and Technology* 참고.

장의 규모는 2025년 약 162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됨.²⁰⁾

- 인도 전역에 걸친 100개의 건설사업 경험이 풍부한 한국의 장점을 살려 스마트시티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.
 - 델리-뭍바이 산업 회랑(DMIC) 사업의 스마트시티 개발은 총 6개가 추진되고 있고, 모두 일본 기업의 컨소시엄이 주도하고 있음.
 - 한·인도 정상회담에서 협의한 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한 지원 및 의사소통 창구 단일화를 위해 한·인도 스마트시티 사업 주관기관의 설립이 요구됨.

■ 신남방 지역의 전략적 투자 거점지로서 對인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, 특히 서비스 투자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.

- 지리적·문화적 거리가 크게 작용하는 인도 투자 진출 시,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정부지원과 같은 외부자원 및 네트워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.
 - 인도 국가 전반의 산업별로 심화된 정보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, 기업의 투자 결정 및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 대한 지원의 전문성 강화, 경험적 지식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기업·기관 간 네트워크 확충에 주력해야 함.
 - 투자 준비 기업에 대해 투자계획 자문·평가 서비스 강화, 초기 비용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- ICT 서비스 분야의 높은 경쟁력과 연구·기술 개발 거점으로서 인도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서비스기업의 對 인도 투자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음.
 - 서비스업의 경우 직접 수출보다는 해외투자가 주요 해외 진출 형태이며, 소프트웨어 등 ICT 및 각종 디지털 플랫폼, 콘텐츠 산업 등에서 경쟁력 있는 중견·중소기업의 인도 진출 및 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. **KIEP**

20) <https://news.join.com/article/22782004>.

[부록] 인도의 대표적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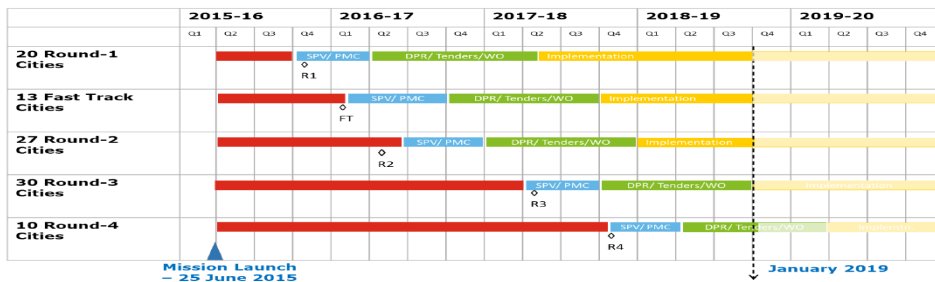
[도시개발] 스마트시티(SCM: Smart Cities Mission) 프로젝트

- 2022년까지 인도 전역에 걸쳐 100개의 도시지역에 전자정부, 폐기물처리, 도로, 전기·수도, 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들을 도시/지역별 개발수준에 따라 차별화하여 도입하는 총 28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
- 100개 스마트시티 개발계획은 2015년 6월에 개발계획이 발표된 뒤 2016년 1월, 1차로 20개의 대상도시가 선정되면서 본격화되었으며, 가장 최근인 2018년 1월에 9개, 6월에 1개 도시가 추가 선정되면서 총 100개 도시가 개발계획 대상으로 확정됨.

[스마트시티 단계별 추진 계획]

(단위: 천만 루피)

	1차	2차	3차	4차	합계
도시 수	20	40	30	10	100
선발 일자	2016.1.	2016.5-9.	2017.6	2018.1-6.	-
프로젝트 수	829	1,959	1,891	472	5,151
투자금액	48,064	83,698	57,393	15,863	205,01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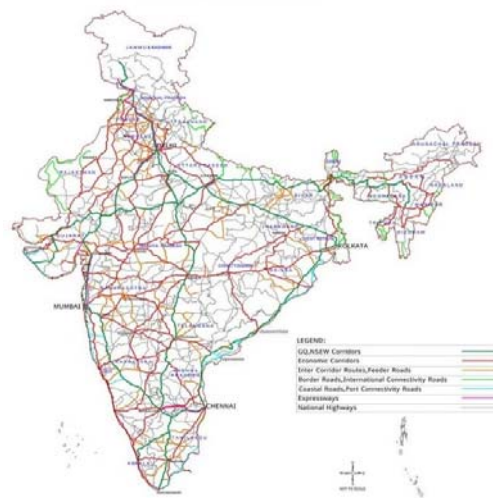


자료: Smart Cities Mission 홈페이지(<http://smartcities.gov.in/content/presentation.php>), 'Smart Cities Mission - An Overview of Implementation'(http://smartcities.gov.in/upload/presentation/5c4834d78cdb30_SCM%20Prez_for%20LAF_v3.pdf)(검색일: 2019. 2. 11).

[도로건설] 바라트말라(Bharatmala) 도로건설 계획

- 1998년부터 추진된 고속도로개발프로젝트(National Highways Development Project, 이하 NHDP)의 종료와 함께 발족된 신규 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로,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960억 달러의 예산이 편성(220억 달러는 기존의 NHDP 예산)됨.
- 총 83,677km 길이의 도로건설 계획으로, NHDP에 남아 있는 10,000km의 도로건설 구간까지 포함하여 50개의 경제회랑, 24개의 물류단지 및 북동지역 7개의 복합항만을 잇는 66개 IC(총 8,000km), 116개 FR(총 7,500km)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함.
- 1단계 계획은 2019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, FY17/18년 10,000km 건설을 완료했으며, FY18/19년 증으로 12,000km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

[바라트말라 계획]



자료: Bharatmala Pariyojana(October 2017), <http://morth.nic.in/BharatMala/index.html#2>(검색일: 2019. 2. 7).

[항만개발] 사가르말라(Sagarmala) 항만개발 계획

- 물류유통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 7월 발족된 약 1,23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
- 6개의 대형 항만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한 항만 현대화(255개, 203억 달러), 항만 연결성 강화(213개, 350억 달러), 항만연계산업화(57개, 663억 달러), 해안커뮤니티 개발(68개, 10억 달러) 등 총 604개의 세부 프로젝트로 구성
- ※ 항만연계산업화: 14개 해안경제특구 건설, 에너지, 광물자원 등 잠재력이 높은 산업 개발 등
- ※ 해안커뮤니티 개발: 역량개발, 어업 활성화, 섬 개발 등
- 2018년 9월 말 기준 522개 프로젝트에 착수했으며, 이 가운데 93개는 완료, 161개는 건설 중이며 268개는 개발 단계에 있음.

[사가르말라 프로젝트 진행 내용]

(단위: 개, 천만 루피)

		FY17/18	FY18/19	FY19/20	2021~25	2025~35	전체
항만 현대화	개수	107	100	15	36	8	266
	금액	38,040	33,738	8,635	54,004	10,680	145,096
항만연결성 강화	개수	82	69	46	13	3	213
	금액	63,095	48,180	35,797	103,453	390	250,915
항만연계 산업화	개수	18	1	5	33	0	57
	금액	136,860	11,147	4,288	322,598	0	474,893
해안커뮤니티 개발	개수	28	34	6	0	0	68
	금액	2,195	4,268	740	0	0	7,204
전체	개수	235	204	72	82	11	604
	금액	240,190	97,334	49,460	480,055	11,070	878,108

자료: 사가르말라 홈페이지(<http://sagarmala.gov.in/projects/projects-under-sagarmala>, 검색일: 2019. 2. 7).

[교량 건설] 뭄바이 해상교량(Mumbai Trans Harbour Sea-Link) 건설사업

- 뭄바이와 신도시 나비뭄바이(Navi Mumbai)를 잇는 20억 달러, 총 21.8km의 인도 최장 해상교량으로, 2017년 11월 계약 체결 후 2018년 4월 착수되었으며 4년 반 후 완공 예정
- 전체 공사를 3개 구간으로 분할 발주했으며, 그중 7억 8,000만 달러에 달하는 7.8km 구간(패키지 2)을 대우건설이 인도의 타타 프로젝트(Tata Projects Ltd.)와 공동으로 수주함.

[뭄바이 해상교량 건설사업]



자료: http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01/25/2018012501377.html.

[뭄바이 해상교량 건설사업 추진 현황]

	패키지 1	패키지 2	패키지 3
길이	10.38km	7.81km	3.61km
구간	Thane Creek - Sewri IC	Thane Creek - Shivaji Nagar IC	교량-고속도로 52, 54, 4B 연결
건설사	L&T(인도) IHI(일본)	대우건설 타타프로젝트(인도)	L&T IHI
금액	11억 달러	7.8억 달러	1.4억 달러

자료: 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Mumbai_Trans_Harbour_Link#cite_note-90.

자료: 저자 작성.